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金 鴻 來

編輯人：金 泰 錫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 156-808, (電話)：02-823-1091, 810-6792 (FAX)：02-823-1092, E-Mail：airfa04@hanmir.com  
HOMEPAGE：www.afa.ac.kr

## 離任辭

친애하는 空士同門 會員 여러분!  
본인이 지난 1년간 총동창회를 맡아 운영하는 동안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積極적인 參與 덕택으로 무사히 그 소임을 마치게 된데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眞心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총동창회는 여느 학교의 동창회와는 다른 군사학교의 동문들의 모임인 특성을 가지고 현재 회원구성도 현역과 예비역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총동창회의 운영목표는 회원 相互間的 親善交流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2의 영공방위를 담당하는 핵심체로 모교와 모군의 唯一한 후원단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회장의 所任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인은 1년 전 회장직을 맡으면서 공사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覺悟와 의욕을 가지고 任務에 임해 왔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本人自身은 물론이고 회원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창회 활동을 활발하게 展開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克服할 수 없는 제약과 현실여건의 未滿 등이 동창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동창회 운영체제가 아직도 初歩의 段階에 있고 보다 성숙된 段階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內實을 다져야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設定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총동창회에서는 海外居住 동문들과의 친선교류를 확대·도모기 위해 美國 "LA공사동창회"와 직접적인 친선교류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평소 총동창회에 대해 무관심했던 회원들을 설득 독려하여 관심을 이끌어 내고 평생회비를 지닌 납부케한 것은 또 하나의 成果였습니. 그 결과 지난해 2억 8000여 萬원의 基金이 오늘 現在 3억 원대를 돌파하여 3억 1,200만원으로 增額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질병이나 불우한 처지에 있는 會員들을 찾아 내어 위로, 격려하는 일을 정례사업으로 採擇, 이를 制度化시켜 지난 연말 첫 "불우 동문돕기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事業들이 비록 두드러지게 내세울 수 있는 큰 사업은 아니었으며 우리 동창회의 점진적 발전과 內實을 다지는 사업이라 확신합니다.

군을 떠난 우리 동창회 모든 회원들이 한때 국가의 간성이었다는 보다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때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참여도 많아지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期生, 어느 회원들 막론하고 당대 젊은이들 중에서는 선택된 Elite 集團으로서 사회적으로도 信譽받는 存在들이었습니다. 士官學校에서, 空軍에서 한껏 젊은 꿈을 펼쳤고, 사회적으로도 認定받았던 空士人이었습니다. 人間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어느 집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람이요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공사인이라는 인



식을 조금씩 높아간다면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본인은 회장직을 떠나면서 앞으로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동창회의 특성은 조국 영공방위의 第2役軍으로서의 役割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현역과 예비역간의 긴밀한 유대강화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 예비역 회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후배 현역들에게 전달, 전파해서 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동기와 誘因이 있을 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 每年 空士 졸업생 중 1명에게만 수여하는 총동창회장 상을 보다 확대해서 현역복무중인 將軍과 예비역 회원 중에서도 해당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총동창회 회장단 구성은 각 期生별로 1년간씩 맡아 운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 동기생들만 참여한 수평적인 회장단으로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多期生, 복합회장단의 조속 수직적인 구성으로 개선한다면 효율성이 보다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사회단체의 조직은 老幼 並存 兼善 兼濟인 피라미드식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多期生 會長團이 參與와 責任의식을 共有하는 制度라 생각합니다.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  
우리 총동창회는 업무추진 실적과 속도는 다소 완만하다 하더라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이 발전해가는 총동창회를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갖춘 李光學 신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게 된 것을 다짐으로 생각하며, 같은 11기 사관 여러분들이 회장단이 되어 총동창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앞으로 1년간 신임 이 회장과 11기 사관이 총동창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년간 본인과 10기 사관에 대하여 따듯한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선배님들, 후배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서 행복이 충만하기를 빌며 인사말로 대합니다.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離任會長 金 鴻 來

## 就任辭

尊敬하는 空士 同窓會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총동창회의 11차년도 운영을 저희 11기 사관 일동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不足한 저에게 會長職을 許與하여 주신데 대하여 本人의 個人的인 榮耀로 생각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그 所任의 莫重함을 切感하면서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率直한 心情입니다.

그 동안 空士 總同窓會는 여러 가지 어려운 條件과 制約 속에서도 높은 뜻을 가지신 先輩 會員님들의 努力과 犧牲, 奉仕의 精神 德分으로 오늘의 發展을 가져 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總同窓會의 運營을 맡게 된 저희 11기一同은 向後 1年間, 그간 이룩된 同窓會의 業績과 傳統의 바탕 위에서 會員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參與와 高見를 收斂하여 더욱 繼承 發展시키고자 最善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周邊 環境은 以前과 같지 않은 樣相으로 變貌되어 소용돌이 치며 다가오고 있는 것이 儼然한 現實입니다. 이러한 때에 비록 制限된 範圍內的 同窓會 活動 領域이지만 母校, 母校를 恒常念頭에 두면서, 同窓會로서 基本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水準을 開發하여 實踐 可能하도록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우선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側面에서 볼 때, 먼저 會員 相互間 團合과 親和를 통한 結束의 強化가 緊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方案들은 여러 가지가 講究될 수 있겠으나 가장 切實하면서도 實踐 可能한 事業의 開發에 力을 집중을 두어 우리 固有의 美風良俗인 扶相相助의 慣習 中에서 限定된 特定 分野에 重點 着眼하여 扶助 制度를 擴充해 나가는 것이 意味 있는 事業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집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短期 課題로서 向後 1年間은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데 最大限 努力을 傾注할 것이며 以後 漸進적으로 擴大 活用될 수 있도록 誘導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會員들의 能力을 效果的으로 發掘하여 發揮할 수 있는 基礎를 造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既 開發되어 있는 공사 홈페이지내의 총동창회 사이트를 構造的으로 發展시키면 會員 相互間 多様한 詳細 情報가 共有됨과 同時에 力量 點檢이 이루어져 總同窓 會員의 能力 資料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며, 必要時 이를 發刊하여 適正하게 活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看過해서는 안될 制限事項들인 人權 등 個人 情報流出에 대한 事前 點檢은 完備한 措置가 要되는 事項들입니다.

本 案은 中期的으로 發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該當 年度 總同窓會 運營 期別 會員님들과의 緊密한 協議가 前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總同窓會와 會員의 正體性 具現입니다.

이미 우리의 母軍과 母校는 半世紀의 年輪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現時點에서 우리 同窓會는 지금의 座標를 再點檢 해보고 省察하면서 우리가 걸어 온 길과 앞으로 指向해야 할 길을 冷徹하게 注視하여 보다 確固하고 明晰한 價値觀을 確立하는 것이 時代의 召命이라고 믿어 집니다. 會員 여러분들의 뜻과 見解를 잘 收斂하여 長期 課題로 持續的으로 發展시켜 나가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보다 可視的으로 具體化시키기 위해 學術的 接近 方法을 試圖해 보면서 窮極의 學問的 理論 定立으로 指向해 나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展望해 봅니다.

이상 말씀 드린 長·短期 課題들은 어느것 하나 수월하게 達成되지 힘든 것들이지만 會員 여러분들의 智慧와 뜻을 잘 받들어 解決의 어려움을 克服해 나가자 합니다. 格別하신 指導와 聲援을 當分해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동안 總同窓會를 훌륭하게 運營하시느라 勞苦를 아끼지 않았신 金鴻來 會長님과 10期 士官 先輩 會員님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면서 會員 여러분들의 健勝하심과 家庭의 平安을 祝願드립니다.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新任會長 李 光 學

祝

總同窓會 會長團 (11次年度)

賀

- 會 長：李光學
- 副 會 長：李泰植, 許次凍, 徐鳳哲, 任社鎬
- 監 事：辛保彦, 丁 燕
- 事務總長：崔文康
- 後 援：11期士官 一同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 空 士 總 同 窓 會 消 息



## 10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0차년도 정기총회를 2003년 6월 17일 공군회관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會 員 現 況

- 가. 입관 총인원 : 7,610명(51기 203명 포함)
- 나. 현재 인원 : 6,973명
- 다. 예비역 인원 : 2,260명

### 2. 主 要 業 務

#### 가. 회장단 부대 방문

- 공군본부 : 2002. 7. 22.      · 작전사령부 : 2002. 7. 22.
- 공군사관학교 : 2002. 8. 20.    · 18전비(강릉) : 2002. 9. 6.
- 교육사령부 : 2003. 1. 17.      · 3훈비(사천) : 2003. 1. 17.
- 군수사령부 : 2003. 4. 11.      · 11전비(대구) : 2003. 4. 11.

#### 나. 모교 관련행사

- 3사체전 격려 행사 : 2002. 8. 20.
- 각 기생 대표 및 선수전원 참석
- 3사 총동창회 회장단 모임, 오찬 : 2002. 10. 2.
- 공사 졸업식 참석 : 총동창 회장상 수여(소위 유진규)
- 5기 사관 입교 50주년 기념행사 : 2003. 4. 19.
- 21기 사관 입관 30주년 기념행사 : 2003. 5. 17.
- 공사교육진흥재단 발전후원회 회장 취임 : 2003. 4. 28.
- 총동창 회장 취임시 자동 승계

#### 다. 주요 행사 참여

- 연금개정 정부 동의안 회의 참석 : 2002. 10. 24.
- 공군 신년 교례회 참석 : 2003. 1. 15.
- 재향군인회 안보대책 회의 참석 : 2003. 1. 21.
- 3.1절 국민대회 참가 : 2003. 3. 1.
- 3월 호국인물 현양행사 참석 : 2003. 3. 6.
- 1기 사관 대위 임택순

#### 라. 간 담 회

- 신·구 총동창회 임원 간담회 : 2회
- 공군 전우회 회장단 초청 오찬 : 1회
- 운영기수(10기) 간담회 : 6회

#### 마. 회보 발행

- 총동창 회보 25호(2002. 7. 20.) : 3,500부
- 총동창 회보 26호(2003. 1. 10.) : 3,500부
- 총동창 회보 27호(2003. 7. 예정)

#### 바. 해외 동창회 교류

- 미서부지역(LA) 공사동창회 첫 교류 : 2002. 10. 14.
- 총 53명 거주(1기~30기)
- 총동창회 지회기 제작 발송
- 공사달력, 회보 및 배지 등 보냄.

#### 사. 원로 회원 추대

- 회칙 제4조에 의거 1기 및 2기사관 원로 회원추대
- 기별 분담금 및 회비 분담 의무 면제

#### 아. 기타 행사

- 연말 불우 동문 돕기 - 위로금 전달
- 수해 부대(강릉) 격려 - 격려금 전달
- 별세 동문 조문 - 조화전달
- 1년간(10차년도) 15명 별세
- 연말 공군/공사달력 배포 : 600부

### 3. 積 立 基 金 及 運 營 金 現 況

#### 가. 적립기금 현황(10차년도)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인수	284,800,000	9차년도 적립
평생회비	16,100,000	161명
이 자	11,860,000	기금저축이자
적립총액	312,760,000	27,960,000 증식

#### 나. 운영금 모금 현황(10차년도)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10기찬조금	30,000,000	35,300,000	10기 전회원 모금
기별분담금	15,800,000	16,400,000	2~30기(이사기수)
회원찬조금	3,000,000	4,900,000	
광 고 비		4,000,000	
이월운영금	1,850,000	1,850,000	9차년도 이월금
계	50,650,000	62,450,000	

#### 다. 운영금 집행현황

구 분	계 획	집 행	비 고
정기총회	4,000,000	4,000,000	
총이사회	2,000,000	1,400,000	
회보발간	3,400,000	3,315,000	2회
총동창 회장상	500,000	500,000	51기 졸업식
배지제작	500,000	500,000	500개
3사체전 지원	4,500,000	4,431,000	생도간식 지원포함
부대방문	2,500,000	2,265,000	공본 외 8개부대
임원 및 운영기수 간담회	5,000,000	5,273,000	
조문(조화)	1,000,000	950,000	15명 조화
사무실 운영비	6,000,000	5,997,000	
인건비	22,200,000	22,150,000	2명
사무실 임대료	3,000,000	1,756,000	
불우 동문돕기	1,000,000	1,000,000	
LA동창회지원	1,000,000	593,000	공사달력, LA지회기
예비비	5,000,000	4,730,000	· 수해 위로금 · 원고료 · 거마비 · 관련단체 찬조
11차 이월		2,000,000	
계	61,600,000	60,860,000	

### 4. 上 程 案 件 議 決

#### 1號 : 10次年度 豫算 決算

- 引受基金 : 284,800,000원      · 基金増殖 : 27,960,000원
- 總 基金 : 312,760,000원
- ※ 運營金 移越(11次年度) : 2,000,000원

#### 2號 : 理事 期數 議決

- 11次年度 理事 期數 : 1-31期(10次年度 理事 期數 : 1-30期)

#### 3號 : 11次年度 任員選出

- 會 長 : 이광학
- 副 會 長 : 이태식, 허차동, 서봉철, 임지호
- 監 事 : 신보연, 정훈
- 事務總長 : 최문강
- 後 援 : 11期 士官 一同

### 총동창회 회장단 교육사, 3훈비 방문

공사 총동창회에서는 김홍래 회장을 비롯 김태석(金泰錫)사무총장, 이한재(李憲宰)감사, 김병태(金秉台)이사 등 4명을 대표단으로 구성, 지난 '03. 1. 17 공군교육사령부와 제3훈련

비행단을 방문했다. 총동창회는 모군 부대 방문계획의 일환으로 2개 부대를 방문하여 교육훈련에 여념이 없는 후배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 (空士 美洲 西部(L.A) 同門會 消息)

공사 총동창회 活動이 활발히 展開되고 있고 총동창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먼 나라 美國 L.A에서도 공사동문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2002년) 10월 L.A 동문회와 총동창회 간에 상호 교류체제를 구축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美洲 西部 同門會 消息을 알아본다.

#### ◇ 2003 신년 첫 모임을 갖고 동문회 명칭을 변경

L.A 동문회에서는 2003년 1. 11. 첫모임(약 40명 참석)을 갖고 새해를 맞아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사동문 상호간 신년 인사교류와 신뢰와 결속을 굳게 다짐했다. 특별히 임동선 목사(초대군종감)께서 80세가 넘는 노인이신데도 이 모임의 자리에 참석하시어 공군사랑 이야기를 들려 주어 흐뭇한 공군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이곳 동문회 활동을 확대 발전시키자는 다수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공군사관학교 미주 서부동문회」로 그 명칭의 변경을 의결했다.

#### ◇ L.A 거주 마종인(1기사관) 회원 작고

오래 전에 이곳에 이민과 살던

마종인 회원이 '03. 3. 22.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곳 동문회에서는 3. 24. 마선배의 영안실을 방문하여 조화와 공사기(空士旗)를 영정 앞에 놓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3. 28. 고별미사에는 22명의 동문들이 참석해서 하늘나라에 고히 잠들도록 기도해 줬다. 고 마종인 선배 유해는 L.A 공항 근처의 Holly cross 장지에 안장됐다. 이국 땅에서 돌아가신 마종인 선배의 영전에 총동창회의 이름으로 삼가 명복을 빈다.

#### ◇ 공사 총동창회기(旗) 제작지원에 감사하고 있다.

L.A 동문회에서는 공사 동문들의 모임을 상징할 만한 것이 없어 이곳 동문들은 늘 아쉬워 하는 점이였다. 그러던 차에 이 소식을 들은 공사 총동창회 회장(김홍래 회장)은 해외 동문들의 뜻을 받아들여 동창회기를 제작, 지난 2월 L.A 동문회로 이를 발송시켰다.

이곳 L.A 동문들은 총동창회의 이같은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동창회기를 동문들의 경조시 정기적인 모임 행사에 공사 동창회의 상징물로서 활용할 계획이며 이미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5기 사관 입교 50주년 행사 개최)

5기 사관은 지난 4. 19(土). 입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꿈 많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7순(旬)이 된 오늘 입교 50주년을 맞는 회원들의 감회는 남달라 보였다.

118명의 동기회 회원과 그 가족들은 당일 모교인 공사를 방문하여 성무대 연병장에서 후배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받고 학교시설을 견학하는 한편 점심식사는 생도식당에서 후배들과 함께 하며 50년 전후 이야기를 뜻깊우기도 했다. 또 5기 사관 일동은 후배 생도들의 교육발전에 써달라는 뜻에서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충주 공군기지로 이동 후배들이 운영하고 있는 19비행단의 현황을 청취하고, 기지 제반시설과 항공기 및 무장 전시장도 관람하는 한편 후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으로 격려금도 전달했다. 저녁 시간에는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으로 이동 자축연을 가지며 오랜만에 회원 상호간 정담을 나누며 시간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깊은 우정의 행사를 성대히 끝냈다. 5기 사관 회원 모두는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고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축하와 지원을 해준 참모총장, 공사교장, 충주 비행단장, 공사 총동창회장께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 ◇ 선배 스승 초청위로

5기 사관 회장단에서는 지난 5월 16일 스승의 날을 기하여 옛 생도시절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당시 신상철(申尙澈) 교장과 박원석(朴元錫) 부교장 내외분을 공군회관에 초청 사은회(師恩會)를 가졌다.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오늘 옛 사제지간(師弟之間)의 정을 잊지 않고 은사를 찾아 주는 일은 매우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신, 박장군 내외분은 80노인이 되셨지만 모두 건강하였고, 이들은 후배, 제자들이 배운 성의에 대해 무척 고마워했다. 은사, 선배를 찾아보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 5기 사관의 친목회(親睦會) 활동

5기 사관은 평소 동기회인 신성회(新星會) 내에 하부조직으로 등산, 바둑, 골프, 낚시 등 4개 친목회를 두고 취미를 같이하는 회원들 간의 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동기회에서는 이들 하부조직들의 활동을 돕고 보다 활성화화를 위해 잔조금을 지원해 줬다. 5기 사관 동기생 회원 간의 친선활동이 활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 (21기 사관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가져)

21기 사관이 임관 30주년을 맞아 지난 '03. 5. 17.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21기 사관이 부부동반 140명이 모교인 공사를 방문하여 행사를 1, 2부로 나누어 추진했다. 1부에서는 사관학교 교정에서 만남의 장으로 그리고 2부에서는 청주지역 명소의 관광을 실시했다. 모교 교정에서는 발전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후배 생도들의 축하 퍼레이드를 관람했다. 또한 점심은 생도식

당에서 후배들과 같이 하며, 30년 선배 간의 만남의 대화를 갖기도 했다. 오후 제2부에서는 유명한 불교사찰 범주사를 관광하고, 저녁시간에는 청주시내 명암호텔에서 민속공연을 관람하면서 뷔페식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동기생 상호간 오랜 만남의 기쁨을 한껏 나누고 30년 전의 꿈 많고 폐기 넘쳤던 청년시절을 회고하는 자리가 되었다.



轉役者 現況

(2003년 1월~6월)

Table with columns: 기수, 계급, 성명, 특기, 전역월, 기수, 계급, 성명, 특기, 전역월. Lists personnel transfers from January to June 2003.

Table with columns: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List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individuals.

화혼(華婚)

(2003년 1월~6월)

Table listing marriages with columns: Name, Date, Name, Date. Includes names like 박할배, 임영호, 이재병, etc.

부음(訃音)

(2003년 1월~6월)

Table listing deaths with columns: Name, Date, Name, Date. Includes names like 마흥인, 김삼직, 선응구, etc.

住所變更

(2003년 1월~6월)

Table with columns: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Lists address changes for various individuals.

# 母 · 軍 · 消 · 息

## 공군, '03년 전반기 지휘관 회의 개최

공군에서는 지난 6. 4. 김대욱(金大郁)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참모 및 각급 단위 부대 전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03년 전반기 공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공군은 ▲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韓·美 연합 작전 능력 제고 ▲ 공군개혁추진 방안 ▲ 노후항공기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공군은 능동적이고 중단없는 개혁추진으로 「신진정예공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정비, 인사개혁 방안 등을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선정된 세부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 전파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중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면평가 제도를 적용할 예정인데, '03년

도 하반기부터 이를 시험 적용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요소 및 방법 등 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다면 평가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04년도부터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하여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해 효율적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자주적 전쟁수행 개념발전 ▲ 첨단 영상정보 수집장비 등 독자적 항공작전 지원을 위한 정보전력 확보 ▲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비행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비행 기지별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지휘강조 전파사항이 하달되었다.



## 국산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 비행교관 탄생

지난해 12월 국산훈련기 KT-1의 비행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앙쿠스 쿠스와라(Engkus Kuswara, 35세) 소령과 하리스 하리안토(Haris Haryanto, 35세) 소령이 3. 22.(토) 15주간의 교육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도네시아 최초의 KT-1 비행교관"으로 탄생했다.

국산최초의 항공기 KT-1을 인도네시아에 해외수출하게 됨에 따라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공군측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이번 '印尼 조종사 비행교육'은 15주간에 걸쳐 한국공군의 중등비행훈련을 담당하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217비행교육대대에서 진행되었다.

최초로 이루어지는 외국군 조종사의 비행교육을 위해 10여 권의 영어교본이 제작되었고, 소령급의 숙련조종사가 1 대 1 전담 교관을

맡았으며, 비행대대내 전용 연구실 및 인도네시아어 통역 등이 지원되었다.

낯선 이국(異國)에서의 어려운 교육과정이었지만 앙쿠스 소령과 하리스 소령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자랑하는 시험비행 조종사 출신답게 빠른 적응력과 이해력을 보이면서 무사히 교육을 마쳤다.

"언어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는 하리스 소령은 "너무 추워서 내복을 3개씩 입기도 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雪)을 보았던 한국의 겨울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고, 동료들에게 선물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산 홍삼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들 印尼 비행교관들은 오는 3. 29.(토) 인도네시아로 귀국하여 본국에서 KT-1B 항공기의 비행교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이라크파병 장병 중 공군요원 4명

이라크에 파병된 675명의 장병 중에는 공군 폭발물처리(EOD)요원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공군폭발물 처리팀(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의 권명수 원사, 장규하 상사, 김인 상사, 조성일 중사 등 4명이 그 주인공, 이들은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지난 4. 30.과 5. 1. 양일간 오산기지에서 「한·미 EOD요원 전술토의」를 가지기도 했다.

팀장적인 권원사는 22년간 EOD요원으로 근무해오면서 90여 회에 걸친 폭발물처리 지원을 통해 이 분야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베테랑으로 오래 전 미국 유학을 통해 폭발물 처리과정교육을 이수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정예요원인 그가 이번 파병지원을 4.7 대 1의 경쟁을 뚫고 파병 EOD요원으로 발탁된 것은 당연한 일, 이라크 파병에서 이들이 부여 받은 임무는 공병 부대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부대 선두에서 항공 불발탄 및 지뢰를 탐색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라크 파병 공병건설부대인 서회부대의 폭발물처리반 공군 EOD팀 4명은 금속탐지기, X-Ray 촬영기 등 소요장비를 점검하여 지난 5월 14일 파병부대 2진과 함께 이라크로 떠나 현재는 현지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 한국과 印尼 공군간 군사협력

지난 달 24일 김대욱(金大郁) 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 차피하킴(chappy Hakim) 대장을 공군 본부로 초청 韓·印尼 공군간 군사 교류 활성화와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장의 초청으로 내한한 차피하킴 印尼 공군총장일행은 4. 24.~27. 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통해 4.

25.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견학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최초국산훈련기인 KT-1B 출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차피하킴 印尼 공군참모총장의 방한을 통해 앞으로 KT-1B 국산훈련기 수출과 印尼 CN-235 항공기 후속 군수지원 등 韓·印尼 양국 공군간 군사 및 방산협력이 구체적인 면에서 촉진될 전망이다.



### 첫 여성 전투조종사 실전 배치

공군 참군 이래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들이 지난 3월 6일 일선 전투비행대에 배치됐다.

공군사관학교 제49기인 박지연(朴志苑·24), 권보라(24), 박지연(朴智沈·24) 중위 등 3명은 6일 기총사격, 폭탄투하 유도비행 등 전투능력 배양 교육을 모두 마치고 영공 수호 임무를 맡게 됐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 경북 예천 공군 전투비행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에서 남자 동료들과 함께 빨간 머플러를 목에 건 뒤 그 동안

F-5 전투기로 전투능력 배양훈련을 받아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초계 비행 임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을 잘 마칠 경우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6과 F-4의 조종간을 잡을 수 있다. 공군은 여성조종사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임무를 맡기되 임신기간 중에는 비행을 금지하고, 출산 때는 6개월이 지난 뒤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조종간을 다시 잡게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 공군 강릉 송정호텔 리모델링 개관

공군은 현역 및 예비역 등 가족단위 휴양 시설인 송정호텔을 약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거쳐 6월 10일 강릉시 송정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송정호텔은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재설계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96평 규모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구성은 객실 45실, 식당, 노래방, PC방,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송정호텔은 경포대, 설악산, 정동진 등 천혜의 관광명소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비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은 '79년 12월 처음 개관한 송정호텔이 노후화가 심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자 '01년도부터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해 왔다.

송정호텔 이용 희망자는 이용일 15일 전까지 공군 복지단 인터넷(<http://www.afbokji.mil.kr>), 인터넷 및 전화예약 시스템(ARS)을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韓·美 공군장병들 성년(成年)의례 가져

지난 5월 19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1983년에 탄생한 韓·미 공군 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31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례(禮)를 가졌다.

같은 행사는 군복무 중 성년이 되는 장병들을 위해서 평택시 예절교육원(원장, 조수화 씨)의 지원으로 전통 성년례를 갖게 된 바, 이날 韓·미 공군측에서는 81명, 미국측에서는 20명의 장병들이 참여해 상투를 뜨는

초가례(初家禮), 술 마시는 예절인 초례(醜禮), 자신의 호를 받는 명자례(命字禮) 등의 절차를 밟으며 어른이 되는 절차를 신고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의식을 통해 참가자들은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자 군인으로 정식 어른이 됨을 인정받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향해 절하는 마지막 순서에서는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에 젖기도 했다.



# 母 · 校 · 消 · 息

## 제51기 사관 졸업 및 임관

지난 3월 18일 공사 제51기 사관의 졸업 및 임관식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대에서 거행됐다. 지난 '99년 입교하여 4년 동안 공군장교로서 품성과 자질을 닦아온 51기 사관은 졸업과 동시에 공군소위로 임관했다. 이들은 재학시절 전공과목에 따라 공학사, 이학사, 문학사 등 학사 학위를 각각 수여 받았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으로 조국의 영공수호를 선도해나갈 장교들로서 이들은 조종, 정비, 무장 등 각자 적성에 맞는 특기를 부여 받고, 전투비행단,

레이더사이트, 기타 일선부대에서 신입장교로서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51기 졸업생 중 홍승화(洪承華, 女, 23세) 소위는 여성으로서는 3군 사관학교를 통틀어 최초로 전체수석의 영예를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받았고, F-16기 현역 전투조종사인 부친 하왕규(河王圭, 49세) 대령의 뒤를 이어 하유미(河宥美, 女, 22세) 소위가 장교로 임관. 부녀 조종사로 탄생될 전망이다. 한편 유진규 소위는 공사를 졸업한 모든 선배들의 가장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총동창회장(회장 金鴻來)상을 수상했다.



## 日本방위대 졸업한 공군장교

- 한국군으로는 최초의 일 -

지난달 일본방위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소위로 임관한 장교가 있어 군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일본방위대학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큰 관심을 모았던 이대규(李大揆, 23세, 51기) 소위는 3년간의 위탁교육을 마치고 귀국. 동기생보다는 뒤늦게 임관하게 된 것이다.

방위대 생도는 '83년 처음 한국 공군사관학교를 친선 방문하게 된 이후 매년 3명씩 지속 방문하고 있으며, 위탁교육은 지난 '96년 10월 방위대 학장의 공사 방문시 상호 교류 확대 논의가 제기된 이후 양국간 타당성 검토를 거쳐 '98년 9월 韓·日

국방장관 회의시 양국간 1명의 사관생도를 위탁교육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지난 '99년 3월 27일 이대규 생도의 위탁교육을 시작으로 현재 3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일본도 작년 3월 1일 혼다 히로카즈 생도가 3군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에서 1년간 3학년 과정을 수료,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대규 소위는 방위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많은 친구들을 사귀 수 있었다며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 공사, 한양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지난 5월 2일 공군사관학교는 한양대학교와 학술면에서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동발전해 나가자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이들 양교는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연구, 학술회의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교환을 하게 됐다. 이날 협정조인식에는 박성국(朴成國) 공사교장과 김종양(金種亮) 한양대 총장을 비롯한 양교 간부들이 참석하여 학술교류에 대한 논의 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동실무위원회 설치에 합의했

다. 공군사관학교는 '99년 10월 한국항공대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한국교원대, 충북대, KAIST, 청주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국내 주요대학과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 제55기 사관생도 입교

지난 2월 15일 공사 제55기 사관생도 입교식이 공사 대연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박성국 교장(중장, 공사 16기)을 비롯 신입생 학부모, 모교교사, 선배사관생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신입생의 입교를 축하했다. 태국에서 위탁교육으로 온 워라웃(Worawut wongurai, 21세) 생도를 포함한 55기 생도들은 1. 8. 가입교하여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끝내고 이날 정식 사관생도로 입교한 것이다. 이날 신입생 중에서는 특이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생도들이 있어 소개하면, 우경식(禹慶植, 20세) 생도는 가족친체가 미국인들인 가운데 이를 거부하고

하늘을 지키는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사에 입교하여 화제를 낳고 있다. 또, 형 이영신(李永信, 24세, 51기) 생도의 아우 이영철(李永哲, 21세) 군과 누나 현인선(玄仁善, 21세, 54기) 생도의 남동생 현동환(玄東煥, 19세) 군이 각각 입교함으로써 형제 및 남매 생도가 탄생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 3사 체육대회 폐지

그 동안 매년 개최해 오던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2003년부터 폐지됐다. 3사체전이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어 계속적인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3사체전이 본래의 취지대로 3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기여해 왔으나 한편으로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각군의 갈등과 정상적인 생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3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3사체전을 폐지시키게 된 것이다.

앞으로 3군 사관학교는 생도들의 상호교류 방안을 통하여 군 내부적인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3사관의 친목을 다져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회원기고란

## 북한 핵 무엇이 문제인가?



김 윤 주(공사 10기)

북한 핵은 분명히 한반도의 문제이고 한반도의 재앙이다. 그 가해자는 북한이고 피해자는 한국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고 두둔하고, 가해자는 이렇게 친절한(?) 피해자에게 대접은 커녕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도 제외시켜 버렸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한국은 화를 내지 않고 다음 번 적당한 시기에 포함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하는 것 같은 반응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는 한국을 도외시키고 미국과 만 대화를 고집하고 있다. 그 위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피해자인 한국에 해달라 한다. 한국은 이 제안에 흔쾌히 쌀 40만 톤을 지원하리라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키며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국제환경은 안보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선 주변 관련 국가들의 시각과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이를 분석한 후에 한국이 찾아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 핵의 진행과정 :**  
 우선 북한의 이익과 기본 전략을 살펴보면 북한은 1)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고, 2) 북한의 독립을 지키며, 3) 북한 측 방식에서 통일 목적을 달성하고, 4) 북한의 경제발전과 군사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에 따라 양의정장 김정일의 사고가 정리된다. 그 동안 북한은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그들의 경제적인 발전의 우위성을 과신하며 끊임없이 무력 적화를 위해 노력했다. '68년의 1·21 사태에 이어 EC-121격추 사건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골적인 공격을 위한 전초 단계의 유향책으로 '72년 남북 7·4 공동 성명을 내세웠고, '74년에는 남한을 배제한 북미간 평화 협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75년 사이공이 함락될 때는 소련과 중국을 번갈아 방문하여 남조선 적화 공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을 고비로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앞섬에 따라 80년대에 와서는 경제적인 발전이 서로 반전되어 적화 야욕에 대한 욕구를 누

그러뜨리면서 본격적인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83년 아웅산 테러, '86년 아시안 게임 방해를 위한 김포공항 폭탄 테러, '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그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커다란 동기가 된다. 북한은 '53년에 소련의 협조로 소련의 DAERI(Dubn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 많은 공학도를 파견하여 '65년에 IRT-2000을 영변에 설치하여 가동할 때까지 만해도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 사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초조감이 '87년에 5MWe 흑 연료를 자체 기술로 개발 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군사적인 목적, 즉 풍부한 흑연광과 우라늄광을 자체 지원만으로 자원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만능을 마련하였다. 그런 와중에 '89년 동독을 시작으로 동구권이 무너지고 중주국인 소련마저도 무너지면서 북한의 핵개발의 욕은 더욱 강해졌다. 프랑스의 SPOT 상업 위성이 영변 핵시설 촬영을 공개하면서 북의 의도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 시작하였다. 곧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남한에서 제거키 위한 책략으로 남에서 미군 핵무기 철수와 북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요구가 남한의 거절로 무산된다. 때마침 미국의 한시 대통령은 '91년 세계전술 핵의 자신 철수와 파기를 선포하면서 북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며 화답을 한다. '92년 "핵 안전 조치 체결의사"를 공식 표명 하고 한국은 한미 T/S훈련 잠정 중단 발표를 하게 된다.

문제는 IAEA가 북한의 핵 사찰 결과분석이 북한의 의도와 불일치하면서부터이다. 핵무기를 위한 제처리 공정에서 플루토늄의 순도를 높여야 무기급의 물질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방사화학 시험실이다. 당시 이 시설이 건설 중이면서 일부 가동하고 있었는데, 핵 사찰을 받기 전에 모든 기기를 모두 치웠다 하더라도 벽에 묻은 미세 먼지만으로 분석이 가능하여 언제 얼마의 양을 몇 번 처리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추측해 낸 것이 약 20kg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을 숨긴 것을 지적하여 확인하려고 한 IAEA 측과 군사시설이라 못보여 준다는 북한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군사 행동까지 가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카터 전 미대통령의 중재로 최악의 경우를 넘기면서 '94년 10월 제네바에서 미북간 기본 합의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로써 북한은 5MWe 흑연로의 가동, 50MWe와 200MWe 흑연로의 건설, 방사화학 시험실, 핵연료 가공 시설에 대한 핵 활동을 동결하게 되며, 합의문에 따라 IAEA는 동결된 핵 시설에 대해 감

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오늘에는 모두 불복하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리며, 그렇게 감상적인 친북 요원들이 핵무기가 북한에 없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이라도 하듯이 보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벼랑 끝 외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통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으로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이 상례인데 왜 지금은 인정했는가? 그에 먼저 주변 국제 관계부터 살펴보아야겠다.

**중국의 시각 :**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주변국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반도를 자기들의 중화권 내에서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면이 매우 강함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틀 내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더 강한 세력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을 관리하는 데는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다. 동맹은 중국 자체의 이익을 감쇄시킨다 하여 가끔씩 지양하고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상대끼리 견제책도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을 견제키 위해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인도를 견제키 위해 파키스탄에 핵 기술을 전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을 견제키 위해 북한에 핵 기술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잠적민이 일본에 대해 일본은 더 이상 강대국도, 경제 대국도 아니라고 일본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보이면서도 미국과는 선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국방전략은 "시간을 벌어서, 경제를 튼튼히 한 연후에, 군사력을 발전시켜 강대국으로 지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 또는 미국과 군비 경쟁을 몰고 올 수도 없는 북핵이라는 자충수가 나오는 것은 절대대로 원치않는다. 더군다나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진다면 일본이 핵을 보유할 명분을 주는 입장이다. 이것은 미래에 동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생길 때 지역적인 패권을 일본과 벌일 것은 북한 입장인데 이를 북한이 빌미를 준다는 것은 절대 용납키 어렵다.

**소련의 관점 :**  
 북한은 정밀 무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옛날 중주국이라는 인연은 지금 경제 요소가 국가 이익의 주류를 차지하는 냉전 이후의 현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사항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한참 핵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던 '90년 3월에도 소련은 북한이 IAEA 핵 안전 조치 협정에 서명할 것인지를 확인 후에 북한의 2,000MWe 경수로 건설 계획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북한에 통보한 바 있다. 동년 9월에도 북한이 NPT탈퇴를 우려하여 경수로 건설지원을 보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91년 4월에는 북한이 IAEA와의 핵 안전 조치 협정에 서명을 않는 것을 보고 서명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자력 장비와 핵 기

술 수출을 중단시켰다. 중국에도 북한에 대하여 IAEA의 핵 안전 조치협정에 서명토록 종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즉, 소련은 비록 냉전 시대의 중주국이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일본의 시각 :**  
 일본은 기본적으로 안보 전략의 초점이 대외 군사적인 대응은 미일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대에 와서 만연된 "탈아론"을 배경으로 동남아에서의 패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빠져나간 이후의 동남아에서의 패권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의 확충이 이미 세계 3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핵 문제만 봐도 2000년 기준으로 나가사키 투하 핵폭탄을 기준으로 3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영국으로부터 40톤의 처리된 무기급의 플루토늄을 도입하게 되어 있고, 2010년까지는 80~90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되어있다. 이는 나가사키 키펀 1만 8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즉,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일본을 제일 경계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은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응 :**  
 미국의 목표는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이것이 걸맞은 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90년대 클린턴 정부 때는 참여와 확산이라는 안보 전략이었다. 세계도처의 안보 상황이 직간접으로 미국의 이익에 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세계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정체를 갖도록 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무한 경쟁을 유도하면서 각국의 의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부시 정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재보완하고 있다.

1. 세계전략의 중심축이 종전의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총 GDP의 1/4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유럽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향후 20년 내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전략에 맞서는 위치가 될 것임을 미국도 중국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시점에 세계 7대 이내의 경제 대국화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유럽에 대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유럽이 힘을 갖게 되면 미국에 대한 반대 세력의 힘이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바르샤바에 대응키 위해 탄생한 NATO가 바르샤바 가맹국까지 끌어 들여 종전의 15개국에서 19개국, 27개



(9면에서 이음)

싶었던 공군생활도 그만 접어야 했다. 내가 군을 떠난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軍事文化가 팽배하던 시절이었고 장교의 신분이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때였다. 그 때 장교생활을 그만두고 훌쩍 미국이민을 택하게 되었으니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하나는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아내를 보다 발달한 의학기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아내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두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자식을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켜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싶은 것이 이민을 결심하게 된 큰 동기였다. 내가 조국을 등지고 이민 길에 오른 것은 1973년 4월 14일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가진 것(財力)은 불충분하지, 딱히 그곳에서 일자리가 마련된 처지도 아니지 그야말로 生面不知의 세계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장래 일에 대한 희망과 꿈보다는 불안, 초조감이 더 앞섰다. 그 당시 한국의 외환관리가 엄격해서 공식적인 자참금이 1인당 150\$이니 4인 가족이려면 겨우 600\$이 전부였다.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이민 길에 올랐으나 단 한가지 기대는 내동서거 L.A Wilshire Blvd에서 무역회사를 열고 있었기에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었다.

그러나 엔젤 동서의 사업이 부진하여 다른 직장을 찾아야 했다. 아무런 백업도 찾아보지 않고 생계수단이 될 만한 직장은 없었고 겨우 찾은 곳이 물비누 공장, 그곳에서 물비누병을 상자에 담고, 옮기는 일이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군장교 출신인데 타국에 와 이런 고생을 사서 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하루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고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면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니, 희극배우 채플린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혼자서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런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어느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두 아들은 십

자가 고상을 쥐고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아내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시켰으나 지병이 악화될 때로 악화되어 있어 결국 회복치 못하고 이민온지 2개월 반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고 말았다. 아내의 병을 고쳐보려고 찾은 이민의 목적을 차 실현해보지도 못하고 아내가 내 곁을 떠나 버렸으니 그 때의 내 심정은 모든 사람의 상상에 맡겨도 될 것 같다. 이민의 제1목적은 산산이 무산돼 버렸지만, 이제 제2목적인 두 아들의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 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 하지만 아내가 없는 빈자리는 도저히 메꾸기가 곤란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2~3배 노력을 해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을 해내리란 힘들고 어려웠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 일하다 3시쯤 집에 돌아와 애들 밥을 해주고 다음날 점심(샌드위치)을 싸놓고 다시 두 번째 일을 찾아나서 일하다 귀가하면 밤 10시가 지나곤 했다.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카운티에 조그마한 식품점을 열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구멍가게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도 사업이라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다 집에 돌아 오게 되니 두 아들의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의 교육, 이것도 원 중이에다가 알파벳을 써놓고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아 출입문에 붙여놓고, 들고 갈 때마다 읽어서 익숙시키도록 한 일도 있었다.

그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경과했을 때 재혼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에 나가 지금의 아내와 연을 맺고 살고 있다. 아내가 없었던 4년 동안 혼자서 두 아들에게 밥지어주고, 점심 싸주기, 세탁하고 청소하며 학과 공부 돌보기, 그리고 가계운영을 다해왔다. 말인들 쉽지만 실제의 고난과 괴로움을 그 어디에 비기랴.

새 아내를 맞이한 후 내 가정에는 다시 행복의 햇빛이 찾아 들기 시작했고, 자식들도 새 엄마를 얼마나 따르는지 이 이후부터는 아내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다고 외면할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장교로서 그것도 사관학교 교관으로서 익숙해 있던터라 사회직장이 무엇인지, 장사가 무엇인지 몰랐던 내가 미국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으니 참으로 가당한 일이다.

그러나 특히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6년 만에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하고 새 아내와 같이 직장을 구해 새 일 자리를 찾아 다니게 되었다. 이 때부터는 가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두 아들도 공부를 잘하고 잘 자리주어 이민생활은 오랜 시련 끝에 순탄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두 아들이 티없이 곧게 자라 학교교육도 정규과정은 모두 제대로 이수하여 지금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해 애비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큰 애는 버클리 대학 전자공학과를 거쳐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이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미스비니 계열사인 씨티뱅크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버클리대학 수학과와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4명이 합작하여 전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벤처사업인 것이다. 회사설립 2년이 경과되었는데 매출이 1,000만 불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Bob & Brown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민을 때 자식교육을 시키겠다는 제2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된 셈이다.

공군 제대 후 남은 젊음을 불태웠던 이민생활에서 이일 제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오늘의 가정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 직장의 의의기(월액검사) 제작회사의 검사관 일도 그만두었고, 내 아내(재혼한)도 직장을 은퇴하여 비교적 한가한 老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요즘은 가끔 시간을 내어 여행을 다니고 있고, 젊었을 때 못다한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 그만큼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민생활 30년을 가끔 되돌아 보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닌 큰 지주가 내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공사 교훈에 새겨졌는데로 "贊, 仁, 勇"이었고 空士人으로서 굳건한 정신주장이었음을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몸속에는 空士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사관학교 입교 50주년에 참석해서 느꼈던 소외와 이민생활에서 있었던 내 가정 이야기 몇 토막을 나열하다 보니 자연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가 된 것 같다.

요즘 공군사관학교의 총동창회 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듣고, 알고 있다. 특히 金鴻來 총동창회장이 취임한 후 이곳 미국의 동문들까지 끌어들여 상호 친선을 도모해 주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곳 미국에서도 남가주에 거주한 동문회원들이 상호 뜻을 같이해서 "남가주 공사동창회" 모임을 매3개월마다 갖고 있고, 1기생부터 41기생까지 많은 경우에는 40명이 모여 상호교분을 나누고 친선을 도모해가고 있다.

이 곳 동문들이 비록 이민과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국적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조국 안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지대하다. 멀리 외국에서 바라볼 때 요즘 한국의 일부 계층의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남북 통일만 된다면 어떠한 체제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은 그리고 국민은 굳게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시 한번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空士人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空士人의 정신주장이 移民生活 30년을 굽힘없이 지켜 준 지렛대라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도 깨끗하게 살아갈 것이다. 공군사관학교와 공사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최 정 석(공사 10기)  
(제해군인회 안보연구소장)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6·25 전쟁 이후 최대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개발 강행과 미국의 대북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친북 좌경세력들은 반미

운동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우리 안보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론통일 및 안보역량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연례행사처럼 또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론분열과 이념분쟁, 남북갈등들이 이어져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필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 및 존치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

어적 성격의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의 선동, 모략의 대남심리전과 간첩활동 등 체제전복 활동과, 남한내 친북 좌경세력들의 반국가활동을 차단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온 유일한 법적장치이다. 보안법 제1조 1항이 밝힌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국가이념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법적장치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며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힘들고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위협받게 된다.

둘째, 북한의 대남적화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개·폐론자들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북한도 변하고 있으니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거나 손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

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내일이라도 당장 일점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의지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고, 안보의 본질적 위협요소인 법, 제도, 군사력 등 「능력의 변화」는 추후도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명시한 북한노동당 규약전문, 헌법, 형법은 일점 일획도 고치지 않고 있고,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정책에 관해서는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본질적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 등 일련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10면에서 이음)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990. 8. 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에는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게 왕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91. 5. 31. 개정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으로 목적과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반국가 활동을 하는 법법자 외에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 실례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담, 사회단체의 교류 및 교환방문, 이산가족 상봉,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등 인적 물적 교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친북 좌익세력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애국세력들에게는 평화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축진제가 될 수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정치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정권안보를 위해 오·남용된 악법인양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분의 過를 가지고 그 동인의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이고, 참여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문제는 개선하면 될 일이지 개·폐의 문제가 아니다.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 개·폐를 논한다면 모든 법이 다 해당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개인의 자유와, 선량한 4,700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며, 오로지 반국가사범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체제 수호법이다.

다섯째, 지금은 국가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이지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정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며, 종전이나 평화상태가 아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해제하는 우(愚)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무슨 국가이익이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침투감첩, 고정간첩, 친북 좌익세력들이 사회 각 분야에 침투 활개치고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마저 개정되면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① 서울 하

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설쳐대도, ② 북한을 찬양하며 주체사상에 심취하여 연방제 통일을 앞장서 주장해도, ③ 간첩이 무리를 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제창해도, ④ 대고, 태업, 테러 등은 갖 파괴행위로 사회혼란을 획책, 조성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마음놓고 전개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건국초기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친북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사회혼란이 극에 달하여 결국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안보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가난해지지만, 안보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친북 좌익세력을 부추겨 어떻게 하든 우리국가안보의 3대 축인, ① 국군의 전투력과 정신무장을 약화시키고, ②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③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궁극적으로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음을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황청 대사 3년, 로마생활의 이모저모



배 양 일(공사 12기)

는 우리의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교황청이라는 뜻은 세속적인 주권국가로 불릴 때는 바티칸 시국(The Vatican City State)이지만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으로 이를 대표하는 의미로는 교황청이라 호칭되는데, 세계적인 평화의 사도로 상징되는 교황청의 영향력은 10억 5천의 신자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 172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우호관계의 증진은 물론, 세계의 각 종교와의 벽을 허물고 종교간의 대화로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실 등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본래 종신직인 현 교황은 1978년 취임 이래 항상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해외순방을 계속 하면서 세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5년 기독교 200주년 및 103위 시성식, 1989년 제44회 세계성체대회 등으로 한국을 2차례 방문한 것은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였던 것이다. 근래에는 교황께서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교황청 순방 이후 더 한층 북한방문의 희망을 표명해 오고 있다. 1999년 초 뜻밖에도 주 교황청 특명전권 대사로 내정 통보를 받았을 때 우선 당황했던 것은 유럽의 종교국가인 바티칸에서 생활하게 될 때의 부족한 신앙심이었다. 군 경험과는 너무나 상이한 주재국이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그렇게 군에서 감조했던 변화와 도전 정신이었는데 현실정말 나의 제2인생에서 도전은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된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다. 외교부로 여러 자료를 확

인해 본 결과 역대대사를 중 군 원로 출신 몇 분들이 거처신 곳으로 초대상주대사로 해병대 참살자이신 신현준 사령관, 강영훈 전임총리 등이 이곳의 대사를 역임하셨다는 데서 조금은 위안을 갖고 부임지로 출발하게 되었다.

로마 시내의 북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대사관과 근세에 유명했던 이태리 화가 데키리코가 살았던 전통적인 유럽풍의 고옥인 관저에서 새로운 외교관생활이 시작되었다. 지난날 군부대 영내아파트에서 비행기 폭음을 들으면서 아침기상으로 시작했던 생활방식과는 달리 정원의 새소리를 듣고 시작되는 생활이 나에게서는 과분한 생각도 들었다. 가족과 외교부직원 외에는 이태리 직원들과의 외국생활이 처음 몇 일간은 오히려 어려웠어 우리의 숙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옛 말이 기억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재국의 2000년 대회 행사준비와 우리대통령 내외분의 주재국 방문계획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나는 이곳이 전쟁터라는 인식으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직원들은 전우로, 외교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싸워 이겨야 하는 전투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출신수범의 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9년 3월, 교황청에게 선임장을 제정하는 행사에서는 공정청 장관의 영접을 받으면서 스위스 군위병들의 열병과 호위속에 가족과 함께 바티칸에 입성하였다. 교황청에게 선임장을 제정하고 교황과 20여 분간의 단독대담에서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영예와 긍지는 대사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고 그동안 인민의 뒷바라지 생활에서 위축했던 아내에게 외교관의 가족으로 보람을 갖게 해주는 기회였다. 당시 80세의 교황께서는 첫 한국방문시 1985년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 열로하셨고 파킨슨씨 병으로 불려한신 거동과 어울리신 발음은 안타까웠으나 지난

3년 동안 가까이 보아온 그분의 건강은 주기가 있었고 교황청하의 측근 참모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주 맑아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분의 열중하던 기도 속에서 그러한 은총이 주어 졌다고 생각되었다.

외교관의 임무는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을 위하여 외교부의 지침을 받아 주재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군의 지휘관과 마찬가지로 대사는 공관운영의 책임을 진다는 데서는 다를 바가 없다. 통상 3년의 체임기간 중에 주재국의 큰 행사와 본국의 국빈 순방과 외교정책 등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주 교황청대사는 한 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일하는 보람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년의 주기로 1세기에 한번 오는 대외년 행사를 교황청하와 같이 종교의 본고장에서 맞게되었다는 것과 대사로 본임하는 기간 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내외분을 처음으로 주재국에 모신다는 두 가지 영광의 기회가 모연히 주어 졌다는 것이었다. 작은 제외공관에 제일 큰 행사 두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준비하는 기간이 군 시절의 주요사건전에 임하는 분위기와 같고 주요행사가 일방하여 주재국과 주요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마치 군 시절의 승공작전 사격대회를 앞두고 우수사격수가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던 순간과도 같이 외교업무도 정성과 집념의 투입정도에 정비례한다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의 지위는 황제보다 상위에 있었는데 중세 침략군의 황제가 교황의 군대와 싸워 이겨도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역사적 관습과 같이 각국의 원수가 방문을 해도 국민자격을 방문이 쉽게

(11면에서 이음)

인가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이태리와 불란서와 같은 가톨릭 국가의 국가원수의 방문 경우는 특별 예우가 주어지게 된다. 2000년 3월의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의 순방국인 프랑스, 이태리 및 독일의 경우는 모두 국민방문의 자격으로 순방이 계획되고 있는 반면, 교황청은 대외년의 큰 행사와 교황성하의 바쁜 일정상 국민방문으로 영접이 곤란하고 공식방문 형태로 정중하게 맞이겠다는 것이었다. 나의 생각은 당시 순방 3개국의 방문이 모두 주요국가이고 국민방문이 계획된 만큼 우리나라 역사 이래 대통령의 첫 바티칸순방이라는 논리로 교황청에도 국민방문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군에서 배운 집념으로 양국에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절근한 결과, 정식 국민방문 초청문서를 수령한 것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외교부 장관께서도 무리가 되면 공식방문이라도 수용하자는 것인데, 당시 나의 생각은 만약 추진하던 국민방문이 생사되지 못하면 군인출신 대사였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는 받을 수 없다는 심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해 11월 영국에 밝히던 순방은 공식방문으로 결정되어 영국대사를 공식요하게 나를 만날 때마다 국민방문의 성사 비결을 문의해 와 우리 대통령 내외분의 순방일까지 주재국 국무장관의 비밀약속을 지키면서 그 답변을 흐렸던 기억이 새롭다. 또한 교황성하와 같이 걸음이 불편했던 김대통령 내외분의 베드로 성당참배에 수 많은 계단을 피해 교황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용차량 통로로 우리의 대통령내외분을 베드로 성당의 성문 앞까지 차로 모셨던 경험은 나의 노력보다 우리 나라 국력의 평가로 보고 싶다. 2000년 6월에는 한반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재국을 이 회담의 의의를 설명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재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당시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교황청의 입장은 과연 남북의 정상이 만날 수 있는가에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보였고 교황께서 1996년 이후 매년 어려운 북한에 성

금과 식량을 교황청 외무차관 주교를 직접 보내 전달해온 실적에 비해 지지정도는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외교서한만을 대사관으로 보내왔을 뿐이었다. 그 다음날 관계장관을 직접 대담하여 성공적인 남북의 관계증진을 위한 계기에 교황청이 이런 남북화합을 격려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장시간의 설득으로 교황성하의 특별명령성명으로 유도한 성과는 외교관의 보람이었다. 교황께서 2000년 6월 11일 거실의 발코니에서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 현장을 한국에 위성중계로 실황 방영했을 때 베드로광장에서 교민들과 한국관광객과 함께 기뻐했던 일은 남다른 추억으로 남는다.

어느 나라든 전문외교관이 아닌 타부서의 전문가로 특임대사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와 개혁은 자신의 경험과 의지로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공군의 경험과 조종사의 관습이 전부였으니 공군의 특유의 스타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경험은 소중했다.

우선 일에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바티칸박물관의 한국관 전시품은 다른 나라와 비교시 양과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다. 우리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국관 개관을 추진하면서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세 문화재 85품목에 107점을 거의 3년에 걸친 노력으로 직접 수령해 놓고 바티칸 박물관장의 전시관 확장까지 약속을 받아 났으니 이를 전시까지 직접확인하지 못하고 귀국했지만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기에 다음 로마의 방문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한편 재임기간에 대사관의 증·개축은 엄청난 노력도 들거니와 서구 국가의 까다로운 건축법은 오랜 역사의 유물 보전이란 차원에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거의 신축에 가까운 대사관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마시청의 공무원, 주민과 건설업자를 상대하면서 배운 이태리의 종습은 어찌 보면 같은 반도국가인 우리만큼과 너무나 유사하여 한국의 관료사회로 착각할 정도였다. 또한 건설업자의 상업주의 정신은 세계가 공통이라는 점도 느꼈다. 대사관 건물을 두 배로 확장하는 공사기간 중 임시거처에서 근무했고, 그래도 힘들게

완공한 훌륭한 건물이라 공관장 임무 종료 전 일주일 동안을 새 현대식 건물에서 생활하고 귀국할 때 오랜 기간 대사관에서 근무한 이태리 여직원 이 그간 대사관의 숙원이 성취되었노라고 기쁨에 찬 모습으로 감사했을 때 세상의 보람·고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대사관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지휘관과 같았던 아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의 재임기간 중 큰 임무 중의 하나가 수많은 고국의 장관, 국회의원 및 중요인사의 로마 방문시 교황 알현요청을 성사시키는 일이었다. 대부분 종교에 상관없이 한결 사색미사에 참석한 후 차례대로 특별히 교황을 직접 알현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필히 대사가 동행하여야만 허락되는 이 기회는 매우 제한되는 것이었으나 교황성하와 그의 측근참모의 각별한 배려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로마에 도착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어설피 이태리어 실력이 조금은 효과를 본 것인지 역대대사로서는 교황 알현의 최다기록을 달분간 유지해 것으로 본다.

매년 기대되는 한가지 만능은 우리 사관생도 몇 명의 이태리 공군사관학교 방문기회에 후배 생도들을 대사관저에 초청하여 발전하는 공군의 미래를 확인하는 담소 기회였으며 나폴리의 이태리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던 그곳의 주변절경은 잊을 수 없는 명작그림으로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또한 로마의 교외 한곳에 한국신학원이 크게 건축되어 교황성하를 모시고 개관식을 올린 후 매우 교민들과 만남의 장은 서로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유일한 장소였었고 약 1만명씩은 확실이 한국의 땅이 로마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대사의 직무란 정해진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뜻밖의 상황에도 조우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바로 다음 해인 2001년 8월의 바티칸의 잠비아 출신 밀링교 대주교와 통일교의 한국인 여성 마리아 성과의 금지된 성직자 결혼으로 야기된 문제로서 교황청 국무성장관의 조기 해결요청을 받아 종교간의 민감한 문제를 피해가면서 서로 원위치로 되돌리는 설득으로 상호간에 어렵게 타협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여기에는 007정보보좌전 결

은 스릴도 필요했었음은 로마에서는 너무나 신문에서 근 한달 동안 크게 다룬 사건으로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 때문이었다.

재임기간 중 대외년을 전후한 수많은 순례객과 관광객으로 로마는 몸살을 앓았다. 매년 약 4,000만 명의 관광객 인파 중에 30만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의 바티칸과 로마방문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베드로 성당의 성문(The Holy Door) 통과 인파 속에서나 바티칸 박물관과 로마시내에서 한국인관광단을 찾기는 쉬웠다. 그 덕분에 심지어 관광객지의 이태리 상인들은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지 "젊은 오빠"와 "빨리 빨리"의 호객소리와 몇 폰의 거스름돈에 한 두장 슬쩍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의 상흔과 풍습 때문에 고단한 관광객들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피로를 풀기도 하며, 소매치기 등살에 제대로 관광을 못했다는 엄살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로마의 풍경이다.

아직도 틀레네스의 발삼기 파편체 메디치가문의 유적과 공명도시 밀라노의 부지런한 북부지역에서 남부 맨발의 마피아의 발상지 시실리 추억, 카프리스섬의 해안풍경 등은 아직도 조종석의 계기판을 보듯이 눈에 선하고 손에 닿는 듯하다. 젊음을 오직 외로운 생 공군의 전투조종사 생활에 바친 자가 종교국가인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추억은 내 인생의 의도인지 모르나 주재국의 "바티칸" 잡지에 2001년의 5월의 대사로 선정되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직종에서 대사로 변신한 나를 "A FIGHTER PILOT LANDS IN ROME"으로 제목을 달아 내 기사를 실어 준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도 특이하게 봤기 때문인 것 같으나, 조종사는 하늘을 날아왔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하는 만능인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지난 3년간의 나의 여러 가지 체험과 일화를 다 적을 수는 없는 것이고 로마생활에서 우선 생각나는 이모저모를 글로 옮겨보았다. 서투른 글 속에 실재가 없었는지 열려스럽기도 하지만 귀국 후 그 공백에 적응하느라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한 선·후배·동료 여러분들에게 「공사회보」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며 그간의 성원에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보라매의 搖籃 星武臺 記行



이 원 천(공사 5기)

記念行事를 하겠다고 몇 번의 運籌委를 소집하고 회담을 우송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空士總同窓會의 지원 아래, 공군본부·사관학교·19飛行團과 福祉團의 협조를 받아서 인교 50돌 기념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光復 직후 1948년에 나라가 서고 이듬해에 金浦에서 陸軍航空士官學校로 胎動한 空軍士官學校의 초대 교장은 金貞烈장군이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莫強한 軍事力의 美國에도 없는 공군사관학교가 가난한 新生의 韓國에 먼저 생겼다는 것은 軍事的 重大한 事件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2차 대전 전에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2차 대전을 경험한 우리 국

군의 先驅者분들은 「바야흐로 制空權 上位時代가 되었음」을 海東靑 보라매의 天里眼같은 눈으로 확고히 간파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 北虜의 不法 南侵으로 사관학교는 大邱로 옮기었다가 다시 濟州道로 옮기고 51년 4월에 鎮海의 天子峯 밑으로 옮겼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修學했다.

그리고 1958년 10기 生徒의 入校와 6期の 졸업을 분기점으로 7년간의 鎮海 假校 시대를 청산하고 서울의 보라매公園 자리에 신축한 학교로 옮겼으나 나라가 탐내는 吉地인데다 鎮山이 허약하여 地運이 動하므로 오래 지킬 수 없는 땅인지라 마침내 다시 옮기지 않을 수 없어 지금의 淸原郡에 새 동지를 틀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이 곧 風水들이 일삼는 虛構의 논리인 것이다.

사관학교에는 Cunningham이나, 前科가 있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리만 쫓

는 小人語는 없고 義를 쫓는 君子와 舍媛들의 영예로운 요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간밤에 즐근 내리치던 빗발(雨脚)은 출발 때도 그치지 아니했다.

시간이 되어 차에 탔다. 생생이 아니고 영감과 함미꽃들이 따로 탄 예가 많았다. 장교의 안내로 유도차를 따라 서울을 나서자 하늘이 먼저 알고 비는 멈추고 행어 햇빛이 방해하라 구름으로 遮日만 쳐놓으니 간치침 분위기가 한결 좋았다. 17번 國道를 타고 忠淸北道 淸州, 淸原을 향해 달리었다.

차안은 도란도란 대화만 있고 여느 관광객과 같은 高聲放歌나 杜康의 醜態가 없는 조용한 분위기부터가 좋았다. 忠州와 淸州로 代表되는 忠淸道는 1966년에 南北으로 나뉘었다. 朝鮮朝 官廳들의 落鄉地가 되어 흔히 양반고을이라 한다. 주로 百濟의 故地이었으므로 南道에는 저자에 간

금년 4월 19일은 空軍士官學校에 5期가 入校한 50돌이다. 화창한 봄날 同期 모임인 新星會의 崔泓善會長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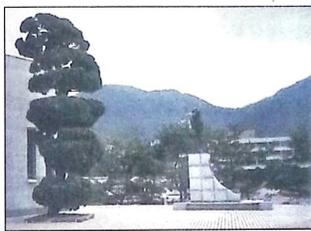
(12면에서 이음)

남편을 기다리는 心懷를 달빛에 띄워 보내는 저 유명한 井邑詞가 있고, 北道에는 산유새(山有花) 가운데 「男女相悅之詞」로 定義하는 메나리조의 노래가 현전되고 있으니 서두는 이렇다. 「나비아 靑山가자 밤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면 꽃에서나 자고 가자.」인데 모두 珠玉 같은 百濟의 古詞다. 우리 7기의 恩門으로 충청도 분을 찾았다면 6대 校長을 역임한 申尙澈 장군과 서울대총장을 거쳐 뒤에 국무총리와 精神文化研究院長을 지낸 李濟賢 박사를 들 수 있으니 모두 국가에 공을 세우고 後學들이 추앙할만한 인물들이다.

충청도는 內水面이 많아 서울 太公들의 行樂이 잦은 곳인데 빙어(水魚)로 만든 「도리뱅뱅이」라는 요리는 가히 天下의一味였다. 버스는 淸州를 지나 淸原郡 南一面으로 향하고 있었다. 「靑川」의 舊稱인 「淸州」군은 1946년 淸州邑이 그 이름으로 승격됨에 따라 나머지 지역을 「淸原」으로 改稱되었으므로 淸州市와 淸原郡은 본래 娘子谷이라고도 했던 같은 百濟의 故地였다. 空軍士官學校가 娘子들에게 먼저 門戶를 開放한 것이 「娘子谷」과 유관할 듯하나 地名의 「子」자는 城과 峴의 古語 「자, 재」에 假借된 경우가 많다. 청주, 청원 일대는 半島의 남북 세력간의 要衝이므로 AD61~66의 5년 사이에 新羅와 百濟가 5번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니 곧 覆岩(覆川)과 娘子谷(淸州, 淸原), 拘婁(文義의 婁城山), 蛙山(報

恩)城 등의 곳이었다. 고려의 태조가 일찍이 淸州의 風土와 風俗을 요악해 말하기를 「땅이 걸고 물자가 풍요로 우며, 사람들은 호걸을 좋아한다(土地沃饒 人多豪傑)」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의 풍속을 「사람들은 호걸을 좋아한다(人多豪傑)」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차는 이곡과 南一面 雙樹里의 사관학교 진입로로 들어섰는가 했더니 금시에 雄壯한 Campus의 全景이 들어나고 차는 곧 生徒會館 앞에서 멈추었다. 현황보고와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공군사관학교가 서울에서 이곳으로 옮긴 것은 1985년도이다. 이 터는 본래 하늘이 공군사관학교를 위해 標高 431미터의 文筆峯 星武峯 남쪽 자락에 秘藏해 둔 것을 筆者의 同期 金在洙 將軍이 天地神明에 告由하고 相地하여 얻은 雙樹里(쌍수리)가 아니라 「쌍수리(雙巒) 連飛形局」의 明堂大地다. 嶺(近祖山)이 들지하여 地運의 動搖가 없고 靑龍이 貫하여 得意飛天하겠으며 翫과 支援助 部營 사이의 走龍이 한쪽의 靑龍인 동시에 다른 局의 白虎가 되어 진실로 神이 共贊할 天寶의 그윽한 吉地라 하겠으니 그럴듯하면 믿으려무나. 현황보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마친 뒤 生徒들의 闖兵은 會長이 맡고, 퍼레이드를 받는 榮光을 누리며 回想에 잠기기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見學을 왔었다. 박물관, 도서관, 生活空間들을 둘러보고 6·25전쟁 때에 출격하여 가장 먼저 空中에서 散花한 1期 任宅淳 先濬님의 銅像 앞에서 웃음을 여미었다.

푸른 꿈 고이 접고  
하늘에서 散花한 남  
후배들은 통일하여,  
천만년을 전하리다.  
거룩한 님의 상을...



그리고 食堂으로 들어 갔다. 50년 차의 낯선 선·후배가 한 식탁에 앉았다. 24시간을 초긴장 속에서 지내는 젊은 兵士들에게 質은 고사하고 필요한 熱度의 食사를 제공치 못해서 노심초사한 역대 지휘관들의 노고로 지금은 모두 解消되었으나 그래도 워낙 Vital한 문제이므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지휘관의 立場인 것이다. 食사를 하며 飯山이 文筆 星武峯이니 生徒라면 文武를 겸비하고 義禮의 준수로 社會에 널리 進出하여 평생을 學問과 버리며 千年老齡인양 고고히 살기를 飯山이 訓告했다. 益齋 李濟賢이 「梨花에 月白하고」로 유명한 李兆年을 「자질이 文武에 빼어나고」 극찬했듯이 지금의 총장과 고상도 學位 所持의 출중한 Elite들이다. 우리 사관학교에는 初代 李承晚 대통령이 남긴 揮毫가 있으니 土民들이 貴히 여겼던 管者的 「武勇」이었고

朴正熙 대통령 것은 列子의 「智勇」 사이에 「한결같이 끝은 마음으로 人生길을 가라」는 뜻의 德字를 넣어 武德까지 기리었으니 길이 받들어 되새길만한 金玉玉條라 하겠다. 다시 우리를 태운 버스는 母校를 뒤로하고 忠州의 19戰鬪飛行團으로 향했다. 忠州는 高句麗의 國原(나릿벌) 또는 未乙省(미릿벌)이었으니 모두 南漢江 벌판이란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百濟에서 高句麗로 들어온 셈이다. 一行은 會議室에서 현황을 청취하고 廣闊한 基地에 散在한 여러 부서의 戰備태세를 돌아보았는데, 전투기의 電子장비와 무장전시장을 관람할 때는 모두가 그 비싼값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16:00시에 각자는 다시 차에 타고 출발하기가 무섭게 일이 끝난듯한지 또 비가 쏟아졌으니 하늘이 우리를 예우한 것이다. 韓愈는 天子誠難測하고 神者誠不明이라고 하늘을 원망했지만 그것이 하늘이요 神인 것이다. 공군회관에 도착하니 粟物의 四物과 우리 儀仗隊가 영접하며 廳을 돌구었다. 夕食에 술한잔 걸친 金鐘南동기가 司會를 맡았다. 가야금 열 두줄이 중모리 > 중중모리 > 휘모리로 넘어가니 여미리 춤사위도 물레처럼 빨라진다. Adieu! 이 날이며 가슴속에 묻히소서. 미망인 여러분 복녕하십시오. 「그대 靑山가시고 누와 함께 노리요. 새 울고 꽃 지니 물도 괜히 흐르네요」(君去靑山誰共遊 鳥啼花落水空流.) 김호부장 高玉辰女史의 同參 有情코. 生徒여러분 武運長久하시어.

空軍生活 42년과 航空戰略發展의 보람



박 덕 희(공사 12기)

없는 일이고 다만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상을 본란을 통해 간략하게 기술하려 한다.

내가 공군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다. 공군이 무엇인지 조종사가 무엇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까까머리 촌놈이 고향 선배들의 푸른 맘도 휘날리는 모습에 넋을 빼앗기고 푸른 하늘을 주름잡는 조종사가 된다는 꿈같은 얘기에 매료되어 特次로 입학 전형을 치르던 공군사관학교에 무조건 응시하여 입교하게 되었고, 이후 빨간바 후라, 신념의 보리매를 지향하던 세월이 벌써 40여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생도생활, 비행훈련 및 전투기 조종사 훈련, 어려웠던 각종 비행임무, 비행교관 생활, 공중조사대회, 비행대장 직무, 작전사령부 및 공군 본부의 참모업무, 기타 대간첩작전 등등 고생스럽고도 기억에 남는 많은 일들을 넘기면서 大額 진급이 예정되었을 때 갑자기 찾아온 불치의 병으로 건강을 잃고 꽤 오랜 세월 치료와 근무를 계속하는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腎臟 이식수술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은 후 곧 대령으로 정년 퇴직하게 되었다. 군의 넓은 아량과 배려 덕분에 공군대학 교수 요원으로 근 10년간 가까운 세월 동안 후배 양성에 전념할 기회를 얻었고, 후에는 몹쓸 다시 살았으니 여생을 공군 발전을 위해

나는 永遠한 空軍人이요, 空軍을 사랑한다.

내 젊음의 전부를 바쳤고, 내 生涯 절반 이상을 공군에서 살아왔으니 空軍인이 아니겠나. 나는 1960년 12期 土官으로 空士에 入校해 42년간 空軍에서 生活하다 2002. 6. 정년 퇴직했다. 내 공군생활은 사람이 태어나서 불혹의 나이가 될 만큼 짧지 않은 긴 세월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한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過誤는 덮어두고 잘했던 일들만을 부각시키는 게 일반적 속성으로 되어 있는 만큼 내가 살아온 공군생활의 일단을 피력하려 하니 내 자랑만을 하게 될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제한된 지면에 42년간 공군생활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바지겠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 퇴직하게 되었다.

대위 시절 군사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 공군대학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 공군대위가 미군 중위들보다도 군사이론 혹은 국제정세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데 큰 충격을 받고 조종사가 조종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 자신과 공군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귀국한 후 무엇보다도 공부를 더 해서 無知를 타파해야 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그런 차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항공기 조종밖에 몰랐던 현령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더 깊이 있게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眼目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공군대학에서 CSC 과정 피교육 중 도서관에서 군사이론에 관한 문헌들을 찾아보니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내 문헌들도 거의 없는 데 큰 실망을 했다. 특히 공군에 관해서, 그리고 항공력 이론 혹은 작전운동에 관해서는 도무지 참고할 문헌이 없었다. 기껏해야 미공군에서 발간하는 「Air Force Magazine」, 일본에서 발간한 군사잡지 몇 가지 정도도 고작이었다. 내가 느낀 이러한 절실함들은 건강을 상실하고 공군대학에 보임되어 교수처, 항공연구발전실, 항공교리연구실 등을 거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공군장교 교육을 위한 지적기반(知的基盤)을 마련하는 데 내 자신이 최선을 다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져갔다.

그리고 나는 먼저 나 스스로 항공 전력(航空戰略)을 연구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후배들의 항공력 관련 이론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적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결심은 공군대학 교수직을 마칠 때까지 나의 목표가 되었고, 누가 뭐라든지 또는 누가 그 노력을 알아주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一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무런 참고문헌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듯이 노력 끝에 약간의 선진국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서 그 자료들 중 중요한 주제들은 곧바로 번역 작업을 하고 이를 발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지적 기반이 전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진국의 문헌을 입수 번역하여 교육하는 것이 조직을 知的으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體得하였다거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은 1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 공군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저명한 항공력 이론가들, 예를 들어 두헤, 트랜저드, 빌리 미헬같은 사람들의 저서 혹은 논문이 우선 번역하여 스스로 교육한 사례나 양차 대전 사이에 일본이 취한 조치와도 유사한 것이다.

초기에 이 자료들은 보잘 것 없었고 번역도 매우 조잡하여 가끔 주변의 핀잔을 듣기도 하였지만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하여

(13면에서 이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끊임없는 개성의 노력을 함으로써 9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사무실에서 발간하는 책자도, 예를 들어 "항공전략"지(誌) 같은 군사이론서는 공군에서 발간하는 문헌 중 가장 가치 있고 불만한 것이라는 평가를 관심 있는 장교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또 기타 연중 2회 발간하는 항공역 이론 관련 단행본 책자 역시 호평을 받아서 학생들의 교재로 그리고 장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는 "항공전략"지(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발간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이름을 바꾼)는 지금 誌齡이 93호에 이르렀고, "발리 미첼", "영국전투", "승리를 위한 폭격", "전국에의 길 항공역 이론의 진화(전 3권)", "항공전략 이론의 이해" 등등의 제목으로 발간된 단행본들은 실 수 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항공역 및 항공전략 관련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90년대 중반까지도 학생 강사의실에서 책대에 보관한 문헌들을 들고 이런 책자 본 적이 있는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겨우 한 두 명이 본 적 있다고 답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홍보 부족 탓도 있었겠지만, 공부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공군장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노력의 성과 여하를 불문하고 번역 발간 업무는 계속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선진국에 비하여 항공전략에 대한 지식수준이 70여 년 정도 낙후되어 있던 것이 90년대 후반에 와서는 2-3년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게 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작전사령부에 근무할 때 미국에서 정칙학 박사만 된 육군 장교들이 나를 찾아와서 공군의 작전에 관하여 이런 저런 질문들을 하고 돌아간 적이 가끔 있었고, 또 공군본부에 근무할 때는 육군본부에 초청받아 육군의 장기전략(長期戰略) 발표를 들은 적도 있었다. 그 당시 내가 그 사람들의 저의(底意)를 곧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를 짐작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는데, 그 후 90년대 중반에 와서 머리 좋다는 어떤 육군 지휘관이 3군 統合 문제를 거론하면서(물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문제를 재입시에 매듭지으려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직감적으로 육군들의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결국 공군을 육군에 예속시키고 공군력을 육군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알고 그런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잠잠해졌지만 적당한 기회가 되면 또다시 이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 공군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항공전략 전문가로서 항공역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그 운용 방법을 다소나마 알게 된 나는 어쨌든 이런 무모한, 그리고 국가방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이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우선 공군이 스스로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소학교에서 암암리에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던 선생님들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공군의 독립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학생장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항공전략 이론과 공군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나의 노력으로부터 학생들이 얼마나 절실한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우리 공군에 항공전략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말, "공군사관학교에 와서 특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강의에 감사의 말을 표하던 고급 장교들 등등을 볼 때 분명히 다수의 학생장교들이 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고 또 정성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항공전략 이론문제 이외에도 공군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유사시에 공군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겠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항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 공군의 항공역교리에서는 협의의 항공전략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고도 중요한 활동 세 가지를 항공전략의 counter(Air Action), 대지해상군 활동(Anti-Surface-force Action), 전략공세활동(Strategic Air Offensive Action)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활동 세 이외에도 항공역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지원활동 혹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활동 세 가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활동은 전쟁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우선 만들고,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공격작전을 수행하며, 필요시는 지상 및 해상군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세 가지 활동 중에 어떤 것에다 중점을 두느냐 혹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전력 운용상의 매우 중요한 결심이 된다.

적의 항공력을 운용할 수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제공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수준의 制空權을 반드시 확보한 연후에 다른 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전쟁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전력을 운용함에 있어 이 세 가지 활동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익숙되지 못한 타군에서는 항상 자비에 대한 지원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력의 운용은 각 군의 편향적 체근근에 의해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역의 역할은 한마디로 항공역이 火力를 운반하여 선정된 표적(targets)에 명중시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타격할 것인가의 대상이 되는 標的의 선정은 곧 항공전략 이론의 핵심이 된다. 표적에 대한 연구는 항공역 발달 1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이론가들이 항상 관심을 집중시켜온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서 공군이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서는 물론 정보가 필수적이다. 항공전략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제한된 지면을 통해서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줄이고,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공군대학 항공전략연구실(042-870-4211)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차대전과 2차대전을 自國 혹은 인접지역에서 경험한 세계 주요 諸國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를 체험을 통해 잘 알고, 또 전쟁에서 항공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공군을 早期에 육군 예속으로부터 독립시켰다. 그렇게 해야 항공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 항공력을 올바르게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을 많이 받은 국가일수록 공군을 일찍 독립시켰다. 1차대전 당시에 독일의 비행선 및 폭격기로부터 많은 폭격을 당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영국이 1918년에 세계 최초로 공군을 육군예속으로부터 독립시켰고, "두해"의 조국인 이탈리아가 '25년에, 프랑스가 '33년에, 독일이 '35년에, 소련이 '46년에, 그리고 본토가 한 번도 피격 당하지 않은 미국이 '47년에 독립하였다.

우리 공군은 미 공군이 '47년에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것에 자극을 받아서 지혜로운 선배 조종사님들의 노력으로 1949년에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였고 6·25 전쟁시에는 용감한 항공활동을 전개하여 航空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데 큰 공을 세웠다. 戰後에 북한에서는 공군력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고 그 후 공군력 증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교훈으로 드러난 항공력의 효과적인 운용 및 적절한 전력 육성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타당성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명분들을 내세워 3개 군을 통합함으로써 결국 항공력을 타군지원 역할에 묶어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논의를 가끔씩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차대한 군사전략을 순수하게 국가안보목표로 하여 수립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편향적 이기심 충족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한 이것은 항공력을 아직도 火力의 일종으로 보고 공군을 육군 지원전력 또는 부속물로 생각하는 前世紀 初期의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류이며, 2차대전 이전의 독일군, 프랑스군, 소련군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항공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군 출신 지휘관이 공군을 지휘하거나 통제하여 항공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전쟁 또는 항공전역에서 패전하게 된 분명한 전례를 반세기 이상이나 세월이 지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도 되풀이하려고 하는 時代錯誤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공군이 좀더 일찍 항공전략 이론에 눈뜨고 많은 이론가와 전략가들이 배출되었다면 오늘날처럼 공군이 위축되고 국가에서 부여해준 권한과 마땅히 차지해야 할 여러 가지 종류의 持分들을 잠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군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올바른 位相을 회복하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상을 높이 세우고 가야 할 앞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가 안보를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다. 나는 이 시대가 공군에서 "두해"같은 또는 "발리 미첼"같은 사명감 있고 열성적인 항공력 주창자 혹은 순교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나의 공군생활에서 이와 같은 생각과 노력이 뜻있는 후배들에 의해 잘 전수되어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 볼 뿐이다.

회비납부안내

- 會員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 ※ 미납자에게는 평생회비 지로용지 발송
- 기별분담금 : 9차 정기총회 의결
  - 회기(2003. 7. 1. ~ 2004. 6. 30.)
  - 3기~10기 : 40만원
  - 11기~31기 : 60만원
- 은행계좌
  - 평생회비 : 지로용지 사용  
혹은,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사총동참회)
  - 기별분담금 : 우리은행 319-269379-02-101  
(예금주 : 사무총장 최문강)
- 연 락 처(총동참회)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8-1 공사총동참회  
우편번호 : 156-808
  - E-mail : airfa04@hanmir.com
  - 전화 : (02)823-1091
  - Fax : (02)823-1092



# 항공우주정책연구원

## Korea AeroSpace Policy Institute



원장 / 김 윤 주

### 공군과 하늘을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 첨단산업과 기술은 발달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은 항공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항공우주사상을 고양하고 국가 안보의 핵심인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국민과 정부에 널리 홍보하여 국가 방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사업추진방향

#### 항공우주정책/전략

항공우주정책·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 항공우주산업발전

과거 단순기술도입 차원에서 시작한 항공우주 산업을 자체개발 및 본격적인 세계 진출 기반을 마련하여 21세기 첨단기술 산업으로 육성·발전토록 효율적인 방향 제시

#### 대국민 여론 선무

범국민적 항공우주사상고취 및 여론형성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 증대

#### 항공우주조사

항공우주조사에 대한 자료 및 연구

#### 항공우주법/제도연구

국내외 항공우주법 및 항공우주기구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으로  
항공우주산업분야발전 모색

### 기금모금

기부금 : 의당금액

원구최제 : 의당구최(1구좌 : 1,000원) 자동이제(1~3년)

### 회원모집

☎ 개인회원 : 개인      ☎ 특별회원 : 법인, 기업체, 단체 등  
 ☎ 평생회원 : 30만원 이상

※ 예금주: 국민은행 067-01-516-991 항공우주정책연구원

사단 법인 **항공우주정책연구원**  
 Korea AeroSpace Policy Institute

www.항공우주정책연구원.com  
 www.kapi.or.kr  
 TEL : (02)541-4311, 824-0494  
 FAX : (02)541-4335

